

“생존권 위협 말라” 고흥서도 김 어업권 분쟁

“수십년 어장 개발·관리했는데 절반 내놓으라니” 고흥군수협 어민들 반발 47년 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인도·해역 방치...나로도수협과 갈등 불리

고흥 발포·지족 인근 해역 김 양식장 3694ha를 놓고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이 어업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남·진도 어민들이 다투고 있는 마로해역 분쟁과 동일하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수협 어민 400여명은 지난 13일 도화면 베이스볼 주차장에서 '김 양식 어업권 시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지금껏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의 잣대로 어업권의 지위를 약용하는 나로도수협의 갑질 횡포에 분노한다”면서 “나로도수협은 면허지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더 이상 고흥 김 양식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고흥군수협은 과거 김 양식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고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로도수협 조합원들이 최근 들어 김 양식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자 이데와서 양식장의 절반을 내놓으라 한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고흥군수협은 나로도수협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8년 220ha, 지난해 154ha 등 총 374ha의

어업권을 나로도수협에 넘겨줬다. 그러나 올해는 김 양식 면허 면적의 절반인 1874ha를 요구해 고흥군수협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를 주관한 고흥군 김생산어민연합회는 나로도수협의 면허지 요구 철회와 어업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고흥군과 고흥군의회에 분쟁 중인 어업권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송기원 고흥군 김생산어민연합회장은 “고흥 김 양식 어민들이 면허지 개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어업권은 존속할 수 없다”면서 “조상 대대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김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면허지 요구가 철회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수협 어민들은 “김 양식장 개발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로도수협이 면허권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매년 1억6000만원의 거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나로도수협 측은 “해당 수역은 법적으로 나로도수협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조합원들이 김 양식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면허지 어



지난 13일 고흥군 도화면 베이스볼 주차장에서 고흥군수협 어민 400여명이 '김 양식 어업권 시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업권 요구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의 어업권 갈등은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이전에는 포두면과 도화면의 모든 섬들이 봉래면에 포함됐으나 1963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가까운 육지부 섬들이 분리·이관됐다. 오도·취도는 포두면으로, 봉래면과 약 10해리(1해리=1852m) 떨어져 있는 시산도는 도양읍으로, 약 8해리 떨어진 지족도·죽도·하도는 도화면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도화면 발포 앞바다에 있는 석환도·삼도·장구도·가메도 등 무인도는 도화면으로 이관되지 않아 봉래면에 남게 됐다. 도화면과 연결한 해안과 무인도 등도 행정구역 개편때 조정됐어야 했으나 방치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양식 어장은 봉래면 사양지선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1998년부터 나로도수협에 면허권이 주어졌으며 면허권역은 현재 19건 3694ha이다. 이곳에서 김 양식으로 연간 1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 해역은 군민들이 함께 살아 가야 할 터전인 고흥군에 속한 바다”라며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의 김 양식 어민들이 원만히 합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는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 등 수협이 2곳 있다. 고흥군수협은 보성군을 포함해 고흥읍 등 14개 읍·면을, 나로도수협은 봉래면과 동일면 2개면을 관장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장 이전비 지원하라”

송전탑 건설에 이전 불가피 한전 “지원 여부 검토할 것”

“영취산 진달래축제장에다가 송전탑 세운다는데 이제 진달래축제는 어디서 해요?”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보존회가 한국전력공사에 축제장소를 옮겨줄 것을 촉구했다. 한전 측은 진달래축제 행사장 주변에 고압송전탑을 건설하면서 행사장 이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7일 진달래축제보존회에 따르면 여수시 중흥동 주민 등 100여명은 지난 14일 진달래축제장에서 집회를 열어 “28년간 열렸던 진달래 축제장이 한전의 송전탑 공사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한전은 축제장 이설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취산은 축구장 140개 규모의 국내 최대 진달래 군락지로, 3월이면 전국에서 20만명 이

상의 상춘객과 시민들이 찾는 진달래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송전탑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지켜온 국내 최대 진달래 군락지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제보존회는 내년 행사를 위해 흥곡사 옆 부지에 공연과 개막행사를 위한 축제 장소를 마련했다. 토지 소유주에게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공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올해 초부터 한전 측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전 측은 지난 2016년 주민 보상에 나설 당시 진달래축제보존회에 3억원을 보상한 점을 들어 추가 지원 요구에 난감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피해 보상은 이미 이뤄졌지만, 축제장 이설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만큼 보존회 측 입장을 듣고 추후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보존회가 지난 14일 진달래축제 행사장에서 한전에 행사장 이전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진달래축제보존회 제공>

한전은 여수산단과 여수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 2017년부터 345kV 규모의 광양 복합화력발전소-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

진 중이다. 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위해 영취산에 24개의 고압송전탑을 세울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1000원으로 영화 보세요

고흥작은영화관 5000원 할인
1주일 1인 2매 현장 발권



고흥군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흥작은영화관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지원금 소진 때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은 총 1517만원이다. 이는 1인당 입장료 6000원 중 5000원이 할인돼 관람객들은 1000원으로 최신영화를 볼 수 있다. 발권한도는 1주일 1인 2매로 영화관 현장 발권만 가능하다.

고흥군에서는 할인행사와 별개로 다음달 8일부터 4일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기획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고전영화부터 다큐멘터리 영화 등 총 10여편을 무료로 상영한다.

한편, 고흥작은영화관은 2016년 2월에 개관해 지금까지 28만1000여명이 관람해 고흥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 위·수탁 협약 체결

삼호의료재단, 5년간 운영

여수시가 지난 14일 여수시청에서 의료법인 삼호의료재단과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로 삼호의료재단(이사장 장호직)은 다음달 2일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을 맡는다.

여수시는 민간위탁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재정 능력, 고용 승계 등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 6월 의료법인 삼호의료재단을 새 운영자로 선정했다.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소재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서 운영해 왔으나 부도와 법인 회생절차 지연 등으로 말썽을 빚었다.

여수시는 공립병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9월 1일까지 협약서에 의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통지한 바 있다.

2009년 개원한 여수시 노인전문노인요양병원은 연면적 3446㎡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125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